

대학교 입학 전 한국어 학습과 대학교 학점의 상관성 분석 -태국 부라파대학교를 중심으로-

김기태 *

Uraiwan Jitpenthom, KIM **

초록

본 논문은 대학교 입학 전의 한국어 선행학습과 입학 후 학점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선행학습자료와 학점 자료는 2024년 부라파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입학 후의 평균 학점은 부라파대학교 교학처 홈페이지에서 추출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에 입학한 부라파대학교 신입생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3~4년 정도 한국어를 배웠으며 한국어능력시험 2급, A-level 한국어 시험 40~70점 정도의 한국어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선행학습과 학점 관계를 분석해 보면 태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부라파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에 비해 더 안정적인 학점을 받았다. 이에 비해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의 평점은 2.00~4.0까지 넓게 분포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급을 받은 학생들은 주로 3.00~3.49점의 학점을 받았으며, 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받은 학생들은 주로 3.50~3.99점의 학점을 받았다. A-level 한국어 시험에서 40점대를 받은 학생들은 주로 2.00~3.5점의 학점을 받았지만 60~70점을 받은 학생은 3.50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 2학년 학생 중 평균 학점(GPAX)가 가장 낮았던 학생은 독학으로 1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A-level에서도 40점대 점수를 얻은 학생이었다. 이에 반해 평균 학점이 4.0이었던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4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었다.

주제어: 태국 대학교, 한국어교육, 선행학습, 학점, 부라파대학교

* 전임강사, 부라파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동양어문학과 한국어전공, email: kim@buu.ac.th

** 조교수, 부라파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동양어문학과 한국어전공, email: uraiwan@go.buu.ac.th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re-university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in university: focusing on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itae Kim*

Uraiwan jitpenthom Kim**

Abstracts

This study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prior Korean language learning before university admission and academic performance (GPA) after admission. Data on prior lear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were collected from 47 freshmen who enrolled at Burapha University in 2024. The average GPA after admission was obtained from the Burapha University Academic Affairs website.

According to findings, freshmen who entered Burapha University in 2024 had studied Korean for about 3-4 years before entering university. Their Korean proficiency ranged from Level 2 in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 scores between 40 and 70 in the A-level Korean exam.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rior learning and GPA shows that students who studied Korean at Thai middle and high schools received more stable GPAs compared to those who studied Korean through self-learning. In contrast, GPAs of self-taught students varied widely, ranging from 2.00 to 4.00.

* Lecturer, Korean Section,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 Facul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urapha University. email: kim@buu.ac.th

** Assistant Professor, Korean Section, Department of Oriental Language, Facul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Burapha University. email: uraiwan@go.buu.ac.th

Students who scored Level 1 on the TOPIK generally received GPAs between 3.00 and 3.49, while those who scored Level 2 mostly had GPAs between 3.50 and 3.99. Students who scored in the 40s on the A-level Korean exam generally had GPAs between 2.00 and 3.50, while those who scored 60–70 points received GPAs of 3.50 or higher.

Among the second-year students, the one with the lowest average GPA (GPAX) had studied Korean through self-learning for about one year and had scored in the 40s on the A-level exam. On the other hand, students with a GPA of 4.0 had studied Korean for more than four years before entering university.

Keywords: Thai univers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prior learning, academic credit, Burapha University

1. 서론

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다.¹ 그 25년을 뒤틀어 보면 서 한국어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두 가지를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한류’이다. 태국인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류는 태국 내 한국어교육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² 또한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 시험’이다. ‘한국어 시험’은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태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A-level(Applied Knowledge Level) 한국어시험’³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한국어시험은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어 선행학습이 없더라도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으면 누구라도 입학이 가능했으나 현재 한국어학과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⁴ 또한 일정 수준의 학생들이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과과정도 변화되고 있다. 물론 교과과정의 큰 틀은 변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등 세세한 부분은 변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한국어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의 시작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은 교사의 뜻으로 남았다.

¹ Soontaree Larprungrueng, Lee Sang Beum(2020, p. 241)에 따르면 태국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9년 송클라대학교 빠다니 캠퍼스라고 한다.

² 정환승(2007, p. 131)에 따르면 ‘2000년대에 이르러 태국 사회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즐기는 한류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한국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열기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를 제일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³ A-Level 시험 중 제2외국어 시험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말리어, 스페인어,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시험은 모두 사지선다형으로 50문제가 출제된다. (<https://enconcept.com/what-is-a-level/>)

⁴ TCAS 3의 경우 태국의 많은 대학이 A-level 점수를 요구한다. 다만 TCAS 3에 반영되는 A-level 한국어 점수의 반영하는 비율은 각 대학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Burapha University(40%), Chulalongkorn University(25%), Naresuan University(30%), Chiang Mai University(50%), Mahasarakham University(20%), Kasetsart University(60%), Srinakharinwirot University(40%) 등이다. (참고 자료: TCAS(Thai University Central Admission) starter, (<https://tcas.in.th/search/category/>) 검색일: 2025.6.6)

태국 내 대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분명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한국어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학습자를 좀더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학습자를 좀더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 입학 전의 한국어 선행 학습과 대학교의 학점 관계를 분석하여 학습자를 좀더 이해하고, 대학교 한국어교육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본론

2.1 선행 연구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다수의 논문이 나왔으며 이들 논문은 대체로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논문이 다수이다.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개인적 특성, 학습 환경, 학습 역량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요인 중 하나는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이 대학 입학 이후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전요한, 2017; 안위·최영, 2016; 강윤이, 2018; 권보영, 2024)는 한국어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전요한(2017, p. 154)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강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는 학습 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안위·최영(2016)은 학부생 102명과 대학원생 51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부생 집단에서는 자기평가식 한국어 능력과 학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대학원생 집단에서는 한국어 능력 점수와 학점 간의 인과

적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강윤이(2018)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과 대학 성적 간에 비교적 높은 학업 예측 타당도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권보영(2024) 역시 외국인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 GPA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류선숙(2019)은 한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 한국어 능력과 학점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학업 성취도가 단순히 TOPIK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동기, 학업 문화 적응,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다양한 전공의 외국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본 연구는 태국에서 선행 학습으로 한국어를 전공하고, 이후 태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어 선행 학습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부라파대학교 동양어문학과 한국어전공 2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1학년의 경우, 학사 정보(학점)가 불충분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4학년의 경우에도 연구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2학년 학생들은 총 47명으로, 2024년 수시 전형인 TCAS 1, TCAS 2와 정시 전형인 TCAS 3을 통하여 부라파대학교 동양어문학과 한국어전공에 입학하였다⁵. TCAS 1은 ‘한국어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여기서 ‘한국어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란 고등학교 내신 3.0 이상인 자 중에서 한국어 경시 대회에 입상한 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연수를 받은 자, 한국어능력시험에서

⁵ TCAS (Thai University Central Admission System).

좋은 성적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TCAS 2는 태국 중부와 동부 지역의 학생만을 특별히 선발하는 전형이다⁶. 이 전형의 선발 기준은 내신 10%, 수능(50%), A-level 한국어(40%)이다. TCAS 3은 정시인데 TCAS 2와 같이 내신 10%, 수능(50%), A-level 한국어(4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인 TCAS 1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어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로써 보통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고⁷, TCAS 2와 TCAS 3에서는 A-level 한국어 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한국어능력 시험 점수나 A-level 점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교 입학 이전의 한국어 선행 학습과 입학 후 학점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 초,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간단한 집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① 출신 지역, ② 한국어학과 지원 동기, ③ 한국어 학습 기간, ④ 한국어 학습 기관, 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등급, ⑥ A-level 한국어 시험 점수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2025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보완적으로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학점(GPAX)은 부라파대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⁸. 해당 시스템은 교수가 담당 수업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이 기본 정보에 평균 학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평균 학점(GPAX)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별 학생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였다¹⁰.

2.3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 분석

이 절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출신 지역과 한국어학과 지원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조사 대상자인 부라파대학교 동양어문학과 2학년(47명)의 출신 지역

⁶ 12 개 지역은 ‘Chachoengsao, Chon Buri, Trat, Nakhon Nayok, Prachin Buri, Ayutthaya, Rayong, Lopburi, Samut Prakan, Sa Kaeo, Saraburi, Chanthaburi’이다.

⁷ 조사 대상자인 2 학년 학생들은 모두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어 경시 대회에서 입상한 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연수를 받은 자는 없었다.

⁸ 부라파대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Office of the Registrar: <https://reg.buu.ac.th/registrar/home.asp>).

¹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검색일: 2025.9.16

은 다음과 같았다.

표 1 2학년 학생 출신 지역

순위	지역	학생수	순위	지역	학생수	순위	지역	학생수
1	촌부리	12	4	차청사오	4	7	나컨사완	2
2	방콕	9	5	빠툼타니	3	8	끄라비	2
3	사뭇쁘라깐	4	6	롭부리	2	9	기타	9

표 1은 조사 대상자의 출신 지역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촌부리로 총 12명(25.2%)이었다. 그 다음으로 방콕이 9명(19.1%), 사뭇쁘라깐이 4명(8.5%), 차청사오가 4명(8.5%)으로 나타났다. 주목 할 점은 방콕, 사뭇쁘라깐, 차청사오가 모두 촌부리와 인접한 행정 구역이라는 점이다. 이들 지역 출신자는 총 29명으로 전체의 61.7%에 해당하였다. 반면 그 외 지역 출신자는 18명(38.3%)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촌부리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부라파대학교 동양어문학과 한국어전공에 대한 지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⁹.

조사 대상자들이 부라파대학교 동양어문학과 한국어전공에 지원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 방식은 단수 응답과 복수 응답으로 구분되었으며, 단수 응답자는 40명, 복수 응답자는 7명이었다. 이에 따라 총 54개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각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한국어학과에 지원한 이유

순위	지원 이유	학생수	순위	지원 이유	학생수
1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	18	7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좋아서	1
2	K-POP 을 좋아해서	9	7	한국 웹툰을 좋아해서	1
3	취업을 위해서	8	7	한국 게임을 좋아해서	1

⁹ 기타는 모두 9 명으로 송클라, 넝부아람푸, 라용, 뜨랏, 푸켓, 아유타야, 춤폰, 수판부리, 치앙라이 지역 출신자였다.

순위	지원 이유	학생수	순위	지원 이유	학생수
4	한국 문화가 좋아서	6	7	한국이 좋아서	1
5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5	7	무엇 전공해야 할지 몰라서	1
6	(제 3) 언어가 좋아서	2	7	무응답	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이 한국어학과에 지원한 주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로, 총 18명(33.3%)이었다¹⁰. 이는 곧 지원자 세 명 중 한 명이 선행 학습을 통해 습득한 한국어를 보다 심화하여 학습하고자 한국어학과에 입학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K-POP을 좋아해서’ 및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라는 응답이 15명(27.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류가 한국어 전공 지원 동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54개의 응답 중 8개의 응답이 ‘취업’이었다는 점은 실용적 진로 요인이 한국어 전공 선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2.4 조사 대상자의 학습 정보

이 절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한국어 선행 학습 경험과 학업 학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학습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할 주요 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어를 학습한 기관은 어디인가, 둘째, 한국어 학습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셋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 혹은 A-level 시험 점수는 어떠한가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후의 분석에서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학습 기관과 학습 기간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1명이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총 46명이었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 기관은 교육 기관이 학교인지 아닌지에 따라 ‘학

¹⁰ 도은정(2022, p. 20)의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 공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교'와 '비학교'로 구분하였다.

표 3 학습 기관과 학습 기간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합계
2학년	학교		1	19	13			33
	비학교	4	7		1		1	13
	합계	4	8	19	14		1	46

표 3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33명(71.7%)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은 13명(28.3%)이었다. 이는 곧 2학년 학생 10명 중 약 7명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들의 대부분(33명 중 32명)은 학습 기간이 3~4년에 이르는 반면, 독학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들(13명 중 11명)의 경우 학습 기간이 대체로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어느 정도의 한국어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국어 시험의 점수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시험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A-level' 한국어시험이 있는데 2학년 학생(47명)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본 학생은 31명, 'A-level' 한국어 시험을 본 학생은 35명이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과 'A-level' 한국어 시험을 모두 본 학생은 19명이었다. 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대상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현황

학년	한국어능력시험	A-level(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A-level(한국어)	합계
2학년	31 66.0%	35 74.4%	(-19) (-40.4%)	47 100%

표 5은 2학년 학생들이 한국어학과에 입학 당시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와 A-level 한국어 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한 학

생들의 대부분(25명, 80.8%)이 2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level 한국어 시험 점수는 주로 40~60점대에 분포하였고, 전체 평균 점수는 55.9점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어능력시험과 A-level 점수 현황

한국어능력 시험	1급	2급	3급	4급	합계		
	5	25		1	31		
A-level 한국어	40-49	50-59	60-69	70-79		최저-최고	평균
	8	14	11	2	35	40-76	55.9점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 6개월에서 1년 전에 시행되며, 초급 기준으로 2급 해당 여부만 평가하고 그 이상의 수준은 측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A-level 한국어 시험은 입학 약 4개월 전에 치러지며, 시험 결과가 점수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보다는 A-level 한국어 점수가 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살펴보겠다. 학점은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¹¹,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의 평균 학점 (GPAX: Grade Point Average Cumulative)을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부라파대학교 교학처(Office of the Registrar) 홈페이지를 통해 추출하였다¹². 다만 교학처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개별 과목 성적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평균 학점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평균 학점에는 한국어전공 과목 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 과목의 성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학점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학점(GPAX)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	합계
2학년	1	3	10	30	3	47

¹¹ 안위·최영(2016, p. 203)에서는 GPA 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학업성취도의 지표라고 하였다.

¹² 부라파대학교 교학처(Office of the Registrar) 홈페이지(<https://reg.buu.ac.th/registrar/home.asp>).

표 7에 따르면, 평균 학점이 4.0인 학생은 총 3명으로, 이들은 1학년 과정의 전 과목에서 최고 등급인 A를 취득한 학생이다¹³. 또한 2학년 학생의 63.8%에 해당하는 30명은 평균 학점이 3.50~3.99 구간에 분포하였다. 이 외에 3.00~3.49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10명, 2.50~2.99 구간은 3명, 그리고 1.00~2.49 구간은 1명으로 나타났다.

2.5 한국어 선행학습과 학점과의 상관성 분석

이 절에서는 대학 입학 이전의 한국어 학습 경험과 입학 이후의 학업 성취도(평균 학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 질문은 다음 여섯 가지이다.

- ㄱ. 선행학습 기관의 유형에 따라 평균 학점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 ㄴ. 한국어 학습 기간의 장·단은 평균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가?
- ㄷ. 한국어능력시험 급수와 A-level 점수는 평균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가?
- ㄹ. 평균 학점이 2.00~2.99점대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의 선행 학습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ㅁ. 평균 학점이 4.00점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의 선행 학습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ㅂ. 평균 학점이 3.50~3.99구간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의 선행 학습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먼저,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대학 평균 학점을 비교하였다. 전체 2학년 재학생 47명 중 학습 기관과 학습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1명을 제외하고, 4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¹³ 부라파대학교의 학점은 4.0 이 만점이며 성적 등급은 A, B+, B, C+, C, D+, D, F로 나타낸다.

표 7 학습 기관에 따른 평균 학점 분포¹⁴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	합계
2학년	학교		1	8	23	1	33
	비학교	1	2	2	6	2	13
	합계	1	3	10	29	3	46

표 7에 따르면,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과 비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평균 학점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의 경우 평균 학점이 3.50~3.99 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69.6%)한 반면, 비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취 수준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93.9%(31명)가 3.00~3.99 구간에 포함된 반면, 비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의 경우 동일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은 61.5%(8명)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인 학습 경험이 학업 성취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에는 대학 입학 이전 한국어 학습 기간의 장·단에 따라 나타나는 대학 평균 학점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자 47명 중 학습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 학습기간에 따른 평균 학점 분포

	2.0	2.5	3.0	3.5	4.0	합계
1년	1	1	1	1		4
2년		1	2	5		8
3년		1	5	13		19
4년			2	10	2	14
5년						

¹⁴ 2 학년 학생 중 1 명은 학습 기관과 학습 기간의 정보가 없어 제외하였다.

	2.0	2.5	3.0	3.5	4.0	합계
6년					1	1
합계	1	3	10	29	3	46명

표 8에 따르면, 입학 전 3~4년 정도 한국어를 학습하고 평균 학점 3.50~3.99점을 받은 학생이 23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평균 학점이 2.00~2.99점인 학생은 모두 4명으로, 이들의 학습 기간은 1~3년에 해당하였다. 반면 4~6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 중에서 2.00~2.99점을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또한 평균 학점 4.00 점을 받은 학생은 모두 4~6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길수록 대학 입학 후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국어능력시험(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등급과 A-level 한국어 점수가 대학 입학 후 평균 학점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자 중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1명으로 이들의 학점은 아래의 표 9와 같았다.

표 9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에 따른 학점 분포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	합계
1급			3	2		5
2급		1	6	17	1	25
3급						
4급					1	1
합계		1	9	19	2	31명

먼저 표 9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80.6%(25명)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 16.1%(5명)는 1급, 3.3%(1명)는 4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시험 1급과 2급을 취득한 학생들의 대학 평균 학점 분포에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1급 학생은 3.00~3.49 점 구간에 3명, 3.50~3.99점 구간에 2명으로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2급 학생은 3.00~3.49점 구간에 6명, 3.50~3.59점 구간에 17명으로 나타나,

3.50~3.99점 구간의 학생 수가 3.00~3.49점 구간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2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1급 수준보다 대학 수업 수행에 보다 적합했음을 시사한다.

이번에는 A-level 한국어 점수와 대학 평균 학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level 한국어 시험을 응시한 학생은 총 35명이었으며, 점수대별 평균 학점 분포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A-level 점수에 따른 학점 분포

	2.0	2.5	3.0	3.5	4.0	합계
40-49	1	2	4	1		8
50-59		1	2	10	1	14
60-69				11		11
70-79				1	1	2
80-89						
90-99						
합계	1	3	6	23	2	35명

표 10을 보면, A-level 한국어 시험 점수는 40점대 8명, 50점대 14명, 60점대 11명, 70점대 2명이었다. 35명의 조사 대상자 중 21명(60%)이 50~60점대를 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학점은 3.50~3.99에 속하였다. 특히 60점 이상을 획득한 13명은 모두 평균 학점 3.50 이상이었다. 반면, 40점대를 받은 8명 중 7명은 평균 학점이 2.00~3.49 구간이었다. 이 결과는 A-level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학업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대학 평균 학점이 매우 낮은 집단과 매우 높은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한국어 선행학습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어 선행학습과 대학 학점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은 평균 학점 2.00~2.99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범위에 속하는 조사 대상자는 4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한국어 선행학습 정보는 표 11와 같다.

표 11 평균 학점이 낮은 조사 대상자의 정보표

순번	학습 기관	학습 기간	한국어능력시험	A-Level	1학년 GPAX
1	비학교	1	-	43	2.94
2	비학교	1	-	42	2.37
3	고등	3	2급	48	2.79
4	비학교	2	-	52	2.89

표 11에 나타난 4명의 조사 대상자는 모두 평균 학점 2.00~2.99점대에 속하는 학생들이다. 이 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교 외의 장소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경우가 많고, A-level 점수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지 않았거나 A-level 점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대학 학업 성취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2 평균 학점이 높은 조사 대상자의 정보표

	학습 기관	학습 기간	한국어능력시험	A-level	평점
1	학교	4	2	58	4.0
2	비학교	6	-	70	4.0
3	비학교	4	4	-	4.0

평균 학점이 4.0으로 가장 높은 학생은 3명이었으며, 이들의 한국어 선행학습 정보는 위의 표 12와 같다. 평균 학점이 4.0인 조사 대상자는 모두 한국어 학습 기간이 4~6년으로 길어 성실성이 높음을 보여주며, 2명은 학교 외 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2급과 A-level 50점대를 받은 학생도 대학에서 4.0을 기록하였다. 이는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입학 당시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학습 기간과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어 선행학습의 방식이나 점수는 대학 학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간의 학습 경험과 성실한 학습 태도, 개인적 노력 또한 학업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한 3.50~3.99점대 학점을 살펴보겠다. 이 학점 대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46명 중 절반이 넘는 29명(63.0%)이 속하였다. 편의상 학생 정보는 표 13과 같이 평균 학점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13 3.50~3.99점대 조사 대상자의 정보표

	평점	학습 기관	학습 기간	TOPIK	A-level	지역
1	3.94	학교	3	2	62	끄라비
2	3.93	학교	3	2		나컨사완
3	3.92	학교	4	2	42	차청사오
4	3.92	학교	3	2	64	방콕
5	3.90	학교	4	2		넝부아람푸
6	3.89	학교	3	2	68	끄라비
7	3.89	학교	3		56	빠툼타니
8	3.87	학교	3		50	촌부리
9	3.85	비학교	2	2	62	뜨랏
10	3.84	학교	3		62	방콕
11	3.83	비학교	1	2	66	촌부리
12	3.81	학교	3		66	방콕
13	3.80	학교	3		54	아유타야
14	3.79	비학교	2		62	사뭇쁘라간
15	3.79	비학교	2		56	사뭇쁘라간
16	3.76	학교	4		50	방콕
17	3.75	학교	3	2	62	푸켓
18	3.75	학교	3	1		나컨사완
19	3.71	학교	4		56	빠툼타니
20	3.72	학교	3	2		차청사오
21	3.69	학교	4		54	치앙라이

	평점	학습 기관	학습 기간	TOPIK	A-level	지역
22	3.66	학교	4	2		송클라
23	3.65	학교	4	2	62	방콕
24	3.64	비학교	2	1	56	촌부리
25	3.64	학교	4	2	58	수완부리
26	3.63	학교	3	2		차웽사오
27	3.63	비학교	2		65	방콕
28	3.59	학교	4	2	76	촌부리
29	3.50	학교	4	2	50	촌부리
	고등23/독학6	1(1)/2(5)/3(13).4(10)	1(2)/2(17)	평(59.0)		

표 13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23명, 학교 외의 장소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6명이었으며, 학습 기간은 1년 1명, 2년 5명, 3년 13명, 4년 10명이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한 학생은 19명으로, 1급 2명, 2급 17명이었다. ‘A-level’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23명으로, 40점대 1명, 50점대 10명, 60점대 11명, 70점대 1명이었다.

표 13를 보면 몇 가지 특이 사례가 나타난다. 3번 학생은 A-level 점수가 42점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학점은 3.92로 높았다. 8번, 16번, 29번 학생도 A-level 점수가 50점으로 낮았지만, 평균 학점은 각각 3.87, 3.76, 3.50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18번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급을 받았음에도 대학 평균 학점은 3.75로 나타났다. 반면 28번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과 A-level 7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대학 평균 학점은 3.59에 그쳤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3.50~3.99점대 학생들의 대학 학점은 입학 전 한국어 선 행학습 점수보다 입학 후 개인적 노력이나 학업 태도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학습 점수가 낮거나 높더라도, 대학 입학 이후의 다른 요인에 의해 평균 학점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라파대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학 전 한국어 선행학습과 입학 후 평균 학점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대학교 입학 전 평균 3~4년 동안 한국어를 학습하였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2급 또는 A-level 한국어시험에서 40~70점대의 성취를 보였다. 정식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의 93.9%(31명/33명)는 대학에서 3.00~3.99점대의 평균 학점을 받았으나,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은 61.5%(8명/13명)만이 3.00~3.99점대의 학점을 받았고, 학점은 2.00~4.0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학습 기간이 길수록 학점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받은 학생들은 주로 3.00~3.49점대, 2급 학생들은 3.50~3.99점대의 학점을 받았다. A-level 한국어 시험에서는 40점대 점수를 기록한 학생들이 주로 2.00~3.49점대의 학점을 받은 반면, 6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3.5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 특히 학점이 2.00~2.99점대였던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비율이 높고, A-level 점수도 40~50점대 초반에 머물렀다. 반면 1년 동안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평균 학점 4.0을 기록한 학생들은 모두 4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3.50~3.99점 대의 학생 29명을 살펴보면, 선행학습 점수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점을 받거나,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기대보다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입학 후의 노력이나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매개 변인이 학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입학 전 선행학습은 대학 학업 성취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 기간, 성실성, 개인적 노력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학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조사 대상자가 부라파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제한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선행학습의 양과 질, 학습 환경, 학습 방법 등 세부적인 학습 요소를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학점 외에 학생의 학업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지표를 고려하지 않아 종합적인 학업 성취 분석이 제한적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태국에서 한국어 선행학습과 대학 학업 성취 간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과 다양한 학업 성취 지표, 세부적인 학습 환경 분석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하면, 한국어 선행학습과 대학 학업 성취 간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이. (2018). *중국 학부 유학생의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보영. (2024).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102), 251-274.
DOI : 10.18628/urimal.102..202409.251
- 도은정. (2022). 태국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개선 방안 -씨나카린위롯대학교 한국어 전공 졸업생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9(1), 1-56.
- 류선숙. (2019).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입학 전 한국어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연구. *교양교육연구*, 13(6), 245-270.
- 안위, 최영.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195-222.
- 전요한. (2017).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습 변인 간의 매개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6), 131-158.
- 정환승. (2007). 태국에서의 한류와 한국어교육. *동남아연구*, 17(1), 131-168.
- Soontaree Larprungrueng, Lee Sang Beum. (2020), Korean Studies Education in Thailand. *한국태국학회논총*, 26(2), 239-260. DOI : 10.22473/kats.2020.2.008

Burapha University. (2025). *Office of the Registrar*. Retrieved 6 June 2025, from
<https://reg.buu.ac.th/registrar/home.asp>

ENCONCEPT. (2025). ทำความรู้จัก A-Level คืออะไร ต้องสอบวิชาไหนบ้าง Dek
67 ควรรู้ไว!. Retrieved 6 June 2025, from <https://enconcept.com/what-is-a-level/>

TCAS starter. (2025). ค้นหาข้อมูล TCAS. Retrieved 6 June 2025, from <https://tcas.in.th/search/category/>

Received: July 30, 2025

Revised: September 19, 2025

Accepted: December 12, 2025